

###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신호평균심전도에 관한 연구

대구 가톨릭의대 내과

유길중\*, 박성훈, 류재근, 최지웅, 장성국

서론 : 급성심근경색 후 주된 사망원인의 하나인 심실성 부정맥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검사의 하나로 심근허혈 및 경색 부위에서 발생하는 후전압(late potential)을 측정하는 신호평균심전도가 이용되고 있다.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경색 원인 관동맥의 개존 여부에 따라 후전압 발생빈도에 차이가 있으며 일차적 관동맥 중재술 및 혈전용해술 등의 재관류 시술 후 후전압의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본 연구는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일차적 관동맥 중재술 및 관동맥의 완전 폐쇄, 그리고 측부혈행의 존재 여부가 후전압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다.

방법 :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 중 일차적 관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56명과 입원 7일 내 관동맥촬영술로 병변이 확인된 6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관동맥 촬영술 전·후 10일 이내에 신호평균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후전압은 40Hz High pass filter로 여과하고 잡음은  $0.7\mu V$  이하로 하였다.

결과 : 1)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신호평균심전도 검사의 양성율은 25.4%였으며 일차적 관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. 2) 관동맥의 완전 폐쇄 및 측부혈행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일차적 관동맥 중재술시 완전폐쇄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양성율을 보였다( $P<0.05$ ). 3) 측부혈행은 주로 관동맥 완전 폐쇄군에서 관찰되었고(21%) 측부혈행이 있는 경우 일차적 중재술 후 후전압의 발생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

결론 :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일차적 관동맥 중재술은 심실성 부정맥의 예측인자인 후전압의 발생을 줄일 수 없었으며 관동맥의 완전 폐쇄 및 측부혈행의 존재 여부가 후전압의 발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.

###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서 야간 혈압 변동에 따른 QT 분산의 변화

전주예수병원 내과

최순필\*, 김용석, 이진구, 임지현, 김양호, 김남호, 문용

배경: QT 분산은 심실 재분극의 비균일성 정도를 반영하는 비관혈적인 심전도 지표인데, QT 분산의 증가는 심근경색증, 심부전증, 그리고 비후성 심근증에서 심실성 빈맥과 돌연심장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. 본 연구는 야간에 10%이상의 혈압 강압을 보이는 고혈압군(Dipper)과 야간에 10% 미만의 혈압 하강 또는 상승하는 고혈압군(Non-dipper)사이의 QT 분산을 비교하고자 하였다.

방법: 본태성 고혈압 환자 중 Dipper군 35명(남 24, 여 11,  $52\pm 9$ 세)과 Non-dipper군 55명(남 27, 여 28,  $55\pm 13$ 세)을 대상으로, 표준 12유도 심전도를 기록하여 12 유도에서 QT 간격을 측정하였고, QTc 분산은 최대 QTc 간격에서 최소 QTc 간격을 뺀 값으로 하였다.

결과: 양군간에 임상적인 특성은 차이가 없었다. 좌심실질량지수, 좌심실 구혈률, 좌심실 중벽 및 후벽 두께는 양군간에 차이가 없었다. 최대 QTc 값( $432\pm 29$  ms vs  $444\pm 29$  ms)과 QTc 분산( $56\pm 17$  ms vs  $67\pm 20$  ms)은 Non-dipper군에서 유의있게 높았다( $P<0.05$ ). 야간 수축기혈압의 변화 정도와 QT 분산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었다( $r=0.306$ ,  $p=0.003$ ).

결론: Non-dipper 고혈압군에서 Dipper 고혈압군에 비해 QTc 분산이 유의있게 높았고, 이러한 QTc 분산의 증가는 최대 QTc 값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.